

신년특집 : 2022년 대한민국에 바라는 국민 희망

■ 2022년, 분야별 이뤄지기 바라는 것

- _ 정치 : ‘정치개혁’과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
모든 성/연령에 걸쳐 대선 관심도 낮아
- _ 경제 :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 희망 가장 높아
5060세대, ‘고용안정·취업난 완화’ 요구 높아
- _ 사회 : ‘코로나19 종식’과 ‘부동산 하향 안정화’
성/연령별, 이념별로 별다른 차이 없어
- _ 국제.북한 : ‘기후위기 협력’, ‘한미동맹’, ‘북미대화’
‘한미동맹’과 ‘남북대화’에 대한 계층별 태도 달라

■ 2022년 전체,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

- _ ‘코로나19 종식’, ‘개인 수입증가’, ‘대선 지지후보 당선’
- _ 계층별 희망사항, 다소 달라

■ 작년과 비교, 2022년 전망

- _ 올해 대한민국, ‘작년과 비슷할 것’
- _ 올해 내 삶, ‘작년과 비슷할 것’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1월 7일(금) ~ 1월 9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9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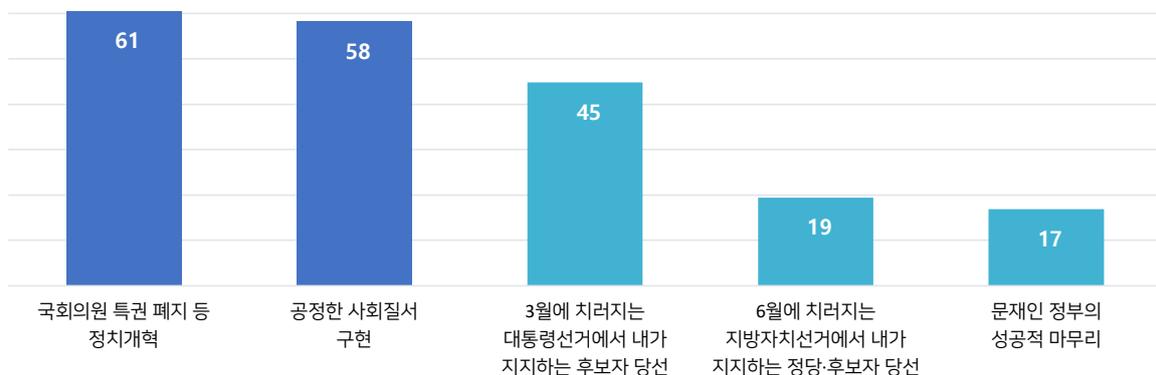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022년 분야별 이뤄지기 바라는 것

□ 정치 : '정치개혁'과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

- 2022년에 예상되는 정치 이슈 중, 국민들이 가장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이 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58%)이 뒤를 이음
- 2022년 예상 정치 이슈는 다음과 같이 5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2개를 선택한 결과임
 - ①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 당선
 - ② 6월에 치러지는 지방자치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후보자 당선
 - ③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 ④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 ⑤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
- 다음으로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 당선'(45%), '6월에 치러지는 지방자치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후보자 당선'(19%),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17%) 순으로 조사됨

정치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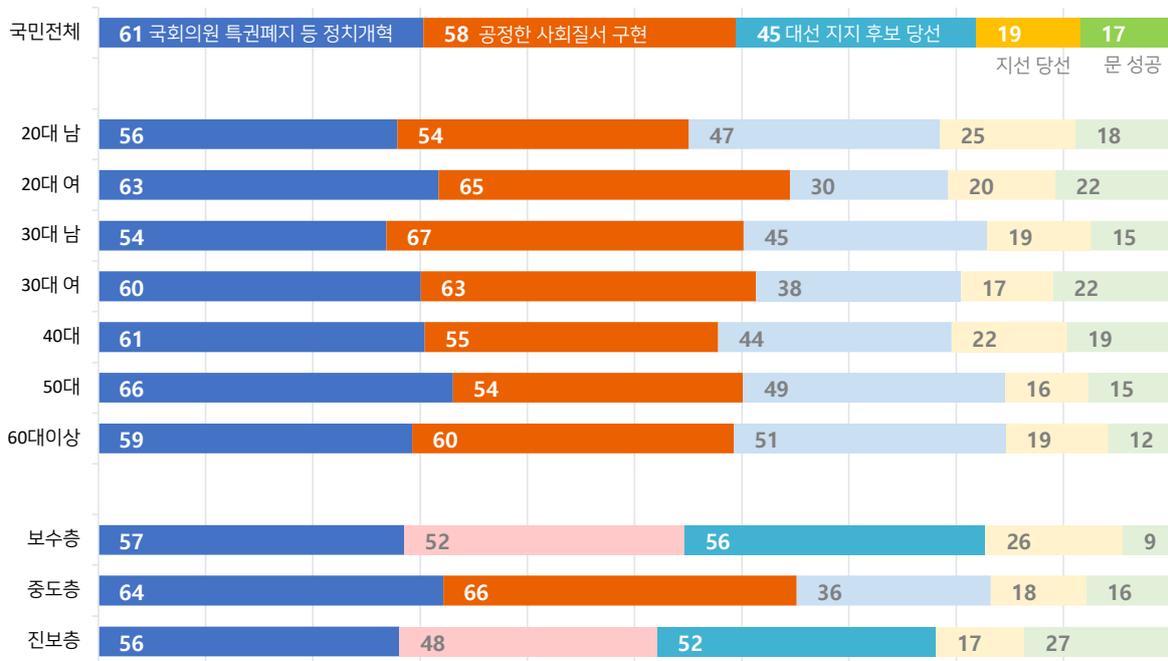
- ☑ 2022년의 가장 큰 정치행사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지만, 국민적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대선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 당선'이 45%로 3위에 그침
 - : 대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과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이 더 높은 응답을 받음
- ☑ 이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이른바 '비호감 대선'으로 치러지면서 다른 대선에 비해 국민적 관심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됨
 - :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이전 대선에서 나타나던 대선후보에 대한 '팬덤' 양상이 사라짐
 - : 이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대감은 낮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40호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집중 분석』 참고)
- ☑ 대선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 중 또 하나는 '정치개혁'이 1위를 차지한 데서 보듯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 때문임
 - :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변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 주장 동의도, 25%
 - : "우리나라 정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주장 동의도, 71%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3호 『민주주의와 개인자유 국민의식 분석』 참고)

□ 모든 성/연령에 걸쳐 대선 관심도 낮아

- 정치 분야 중 가장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연령에서 ‘정치개혁’과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이 높은 순위를 기록함
- 세부적으로는 성/연령에 따라 1위를 기록한 정치 이슈가 다소 다름
 -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 정치개혁’ 1위 : 20대 남, 40대, 50대
 -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 1위 : 20대 여, 30대 남, 30대 여, 60대 이상
- 한편,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대선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 당선’이 높게 나타남
 - 중도층은 국민전체 여론과 같이 ‘대선 지지후보 당선’이 3위를 기록함

정치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2.01.09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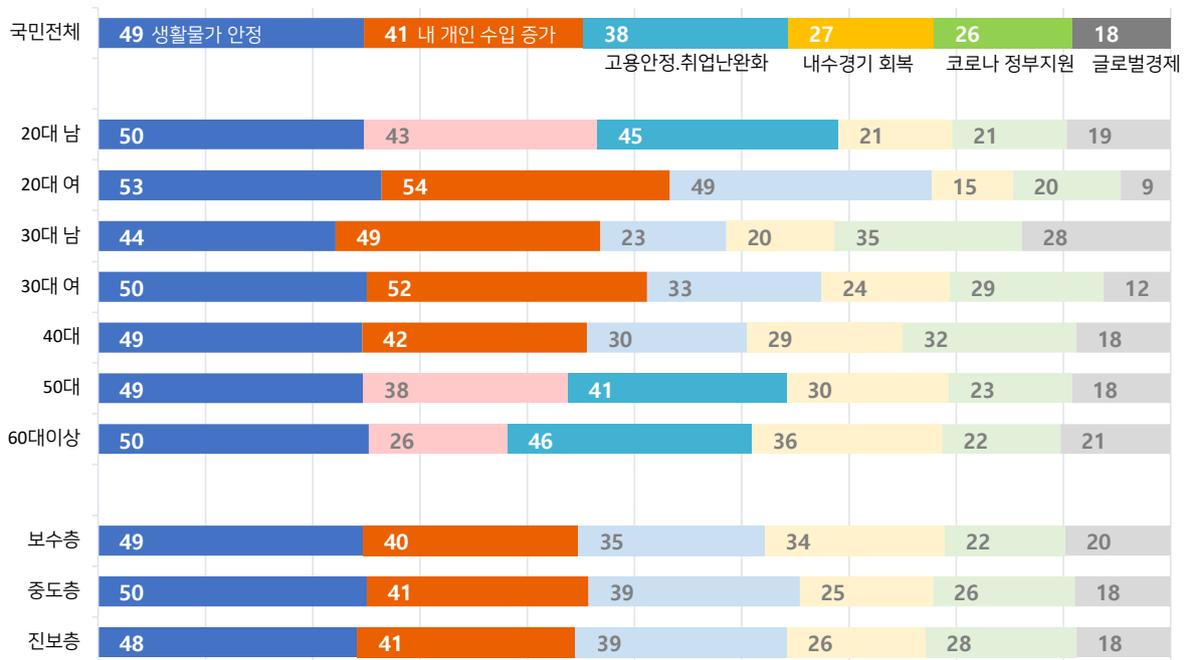
Kstat Point

- ☑ 당초 이번 대선은 보수층과 진보층 간의 ‘진영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고, 중도층은 이러한 첨예한 진영대결 양상 속에서 해체되어 두 진영 중 한 곳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 그러나 양 진영 후보자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로 인해 중도층은 해체되기 보다 대선에서 거리를 둔 채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모습임
- ☑ 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되는데, 보수층과 진보층에서는 ‘대선 지지후보 당선’이 높은 응답률을 보이지만 중도층에서는 응답률이 낮음
 - : 또한 ‘중도층의 부동층화’ 양상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 모든 성/연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투표율 역시 이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됨
- ☑ 한편,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거대 양당 후보가 대변하지 못하는 점 역시 ‘비호감 대선’ 양상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보임

□ 5060세대, '고용안정·취업난 완화' 요구 높아

- 경제 분야 중 가장 희망하는 것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생활물가 안정'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성/연령별은 물론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도 '생활물가 안정'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내 개인 수입 증가'와 '고용안정·취업난 완화'에 대해서는 성/연령별로 응답률 차이를 보임
 - '내 개인 수입 증가' 응답률이 더 높은 성/연령 : 20대 여, 30대 남, 30대 여, 40대
 - '고용안정·취업난 완화' 응답률이 더 높은 성/연령 : 20대 남, 5060세대

경제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2.01.09조사,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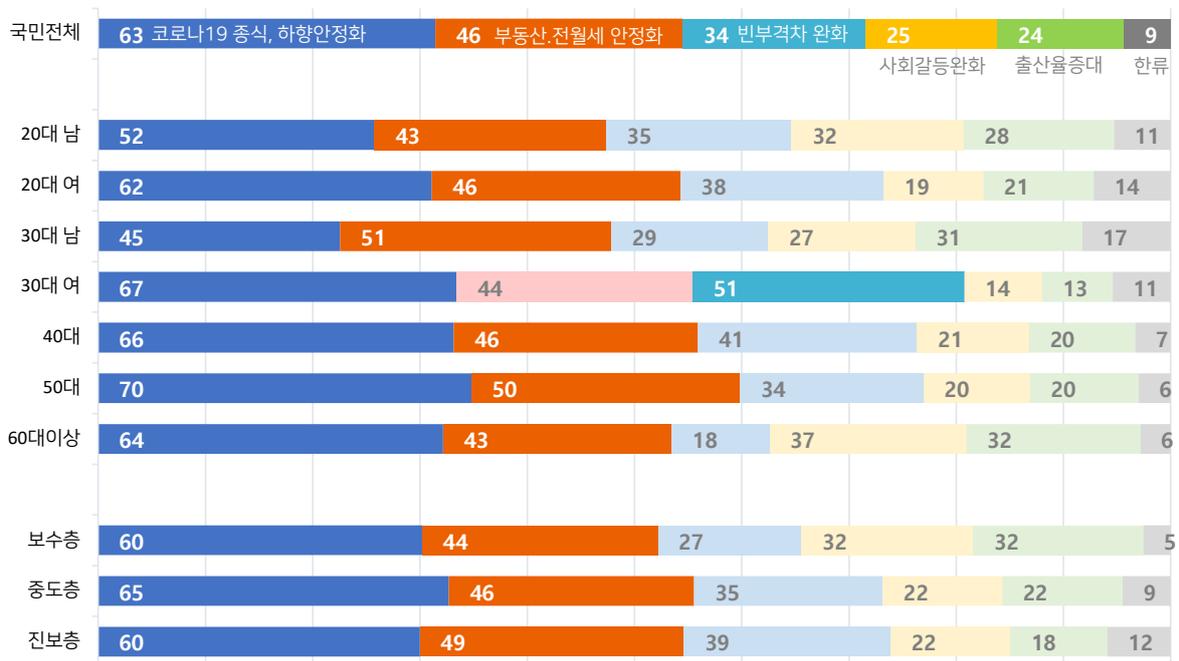
- ☑ 모든 계층에 걸쳐 '생활물가 안정'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물가 인상이 전방위적이기 때문임
 - : 일례로 작년 12월 생활물가 상승률은 4.8%였으며 구체적으로 갈비탕 10%, 쇠고기 7.5%, 김밥 6.6%, 치킨 6.0%, 라면 5.5% 등이 상승함
 - : 새해 들어서는 커피값이 인상되고, 다음은 맥주 등 주류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황임
 - : 물가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 그리고 '내 개인 수입 증가'와 '고용안정·취업난 완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성/연령별 태도가 다른 점이 주목됨
 - : 5060세대는 '고용안정·취업난 완화'를 통해 '개인 수입 증가'를 희망하는 데 비해, 2030세대(20대 남자 제외)는 '개인 수입 증가' 그 자체를 희망하고 있음
 - : 이는 직장생활을 통한 수입 증가라는 5060세대와 직장생활 외에서도 수입 증가가 가능하다는 2030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 한편, '내수경기 회복'을 희망하는 국민은 많지 않아 국가 경제 발전과 '내 개인의 수입 증가' 간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임

□ 성/연령별, 이념별로 별다른 차이 없어

- 성/연령별, 그리고 이념별로 살펴봐도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종식을 가장 많이 응답한 성/연령대는 50대이고, 가장 적게 응답한 성/연령대는 30대 남자임
- ‘부동산 가격 및 전월세 시장 하향 안정화’ 역시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30대 여자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하향 안정화’보다 ‘빈부격차 완화’가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사회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2.01.09조사, 단위:%)



Kstat Point

- ☑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은 기약 없이 미뤄짐
 - :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먹는 치료제 개발·보급이 더해져 팬데믹 종식이 기대되지만 여전히 그 시기는 불확실함
 - :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출발은 앞서의 ‘물가안정’과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그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됨
- ☑ 부동산 시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승할 경우, 하락할 경우 모두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 이에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새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임

□ 국제.북한 : '기후위기 협력', '한미동맹', '북미대화'

- 2022년 예상되는 국제.북한 이슈 중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기후위기 글로벌 협력 강화'(44%), '한미동맹 강화'(43%), '북미대화 및 북핵문제 해결'(40%) 등이 비슷한 규모로 높게 나타남
 - 2022년 국제.북한 이슈는 다음과 같이 6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2개를 선택한 결과임

① 미중관계 개선	② 한중관계 개선/강화
③ 북미대화 및 북핵문제 해결	④ 남북대화 재개 및 협력 강화
⑤ 한미동맹 강화	⑥ 기후위기 글로벌 협력 강화
- 다음으로 '남북대화 재개 및 협력 강화'도 36%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응답률이 가장 낮은 이슈는 '한중관계 개선, 강화'(16%)이고, 다음은 '미중관계 개선'(20%)으로 조사됨

국제.북한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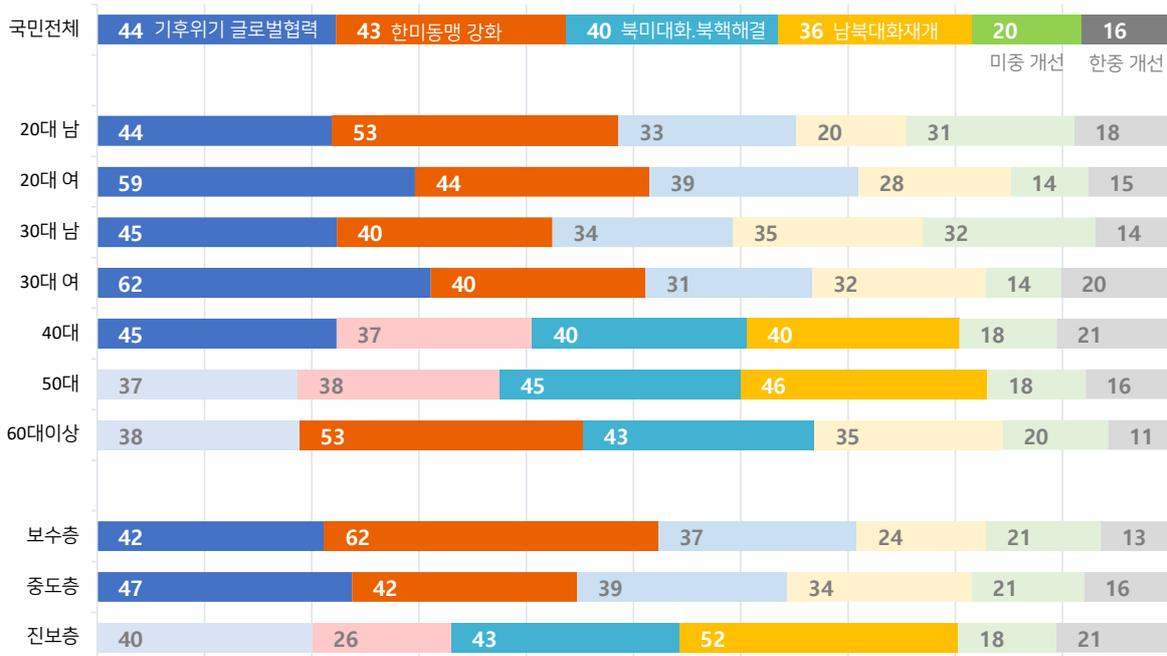
- ☑ 국제.북한 이슈에 대한 국민 희망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됨
 - : 한미동맹, 북미대화, 남북대화 등 전통적 국제이슈 외에 기후위기 이슈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이 주목됨
 -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심각성이 확산되는 흐름에 우리 국민들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 ☑ 한편, 미중관계 개선 및 한중관계 개선 등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 미중 무역갈등 초기에만 해도 미중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와 개선에 대한 여론이 상당했음
 - : 그러나 미중관계가 협력보다 대립 관계로 명확히 정리되면서, 우리 국민들 역시 미중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우리 국민들은 한중관계 개선, 강화에 대한 희망도 버리고 있는 양상임
 - :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은 72%이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14%에 그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29호 『국제관계와 미중 갈등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참고)

□ '한미동맹'과 '남북대화'에 대한 계층별 태도 달라

- 국제.북한 이슈에 대한 응답을 성/연령별, 이념별로 살펴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
 - 차이는 '한미동맹'과 '남북대화'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먼저 국민 전체 여론처럼 '한미동맹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연령은 20대 남녀, 30대 남녀, 60대 이상 등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으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응답률이 낮음
- 이에 비해 '한미동맹 강화'보다 '남북대화 재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연령은 4050세대임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으로, 이들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낮음

국제.북한 분야,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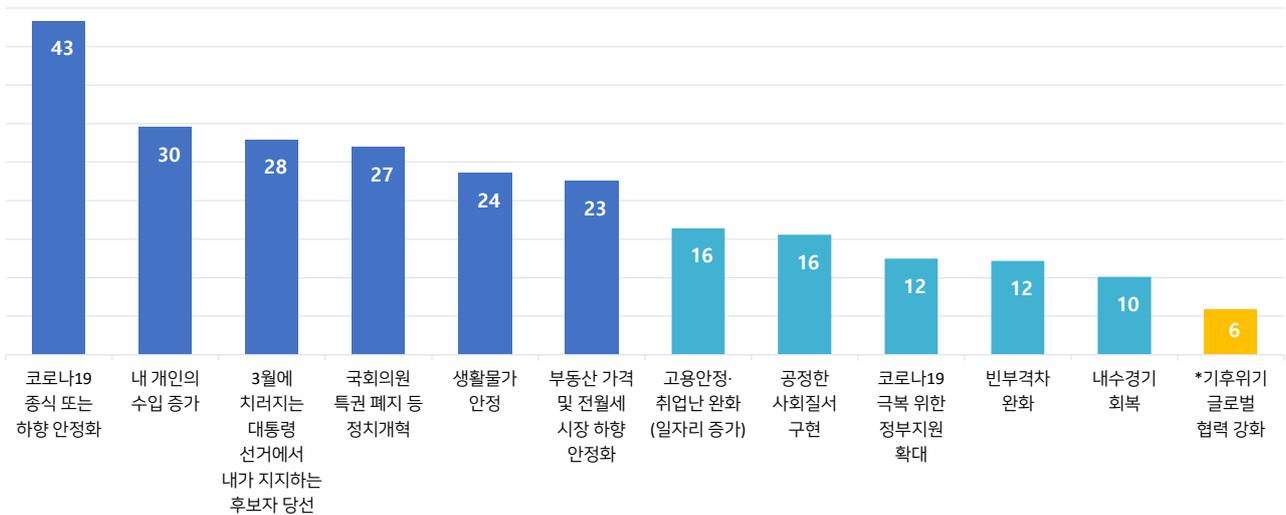
- ☑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대화는 단절되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미대화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 :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틔우지 못하고 있음
 - : 하지만 북한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 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성/연령별, 이념별로 우선순위가 다름
 - : 2030세대와 60대, 보수층과 중도층은 한미동맹 강화를 중시하고, 4050세대와 진보층은 남북대화 재개를 중시함
 - :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를 두고 성/연령별, 이념별로 대립할 여지가 있음

2022년 전체,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

‘코로나19 종식’, ‘개인 수입 증가’, ‘대선 지지후보 당선’

- 우리 국민들이 2022년 대한민국에 가장 희망하는 것은 ‘코로나19 종식’(43%)으로 나타남
 - 각각의 응답자가 ‘분야별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으로 선정한 이슈들을 모두 제시하고, 그중 가장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 3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 다음으로는 ‘내 개인의 수입 증가’(30%),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 당선’(28%), ‘정치개혁’(27%), ‘생활 물가 안정’(24%), ‘부동산 시장 안정화’(23%) 순으로 응답함
- 그 다음으로는 ‘고용안정·취업난 완화’(16%), ‘공정한 사회질서’(16%), ‘코로나 극복 정부지원 확대’(12%), ‘빈부격차 완화’(12%), ‘내수경기 회복’(10%) 순으로 조사됨
- 한편, 전반적으로 국제.북한 이슈들은 낮은 응답률을 기록함
 - 국제.북한 이슈만 놓고 질문했을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기후위기 글로벌 협력 강화’가 2022년 전체로 놓고 질문했을 때는 6%에 그침

2022년 전체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Kstat Point

- ☑ 2022년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 사항 Top 11 중 1위는 ‘코로나19 종식’으로, 국민적 희망이 집중됨 : Top 11은 응답률 10% 이상을 기록한 이슈들임
- ☑ Top 11 이슈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가 5개로 가장 많음(내 개인의 수입 증가, 생활물가 안정, 고용안정·취업난 완화, 코로나 극복 정부지원 확대, 내수경기 회복) : 다음은 정치 분야 3개(대선 지지후보 당선, 정치개혁, 공정한 사회질서), 사회 분야 3개(코로나19 종식, 부동산 하향 안정화, 빈부격차 완화), 국제.북한 분야 0개 등임
- ☑ 주목되는 점은 정치분야 이슈만 놓고 질문했을 때 ‘공정 사회질서 구현’보다 후 순위였던 ‘대선 지지후보 당선’이 전체를 놓고 질문했을 때 모든 정치이슈를 제치고 가장 앞선 순위에 위치함 :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이전 선거에 비해 낮을 뿐, 여전히 높은 관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계층별 희망사항, 다소 달라

- 2022년 대한민국에 희망하는 상위 이슈는 성/연령별, 이념별로 대체로 비슷함
 - 대부분의 계층에서 1위, 2위는 '코로나19 종식'과 '개인 수입 증가'가 차지함
 - 4050세대는 국민 전체 상위 이슈와 순위만 다를 뿐 이슈 자체는 동일함
 - 이념별로도 국민 전체 상위 이슈와 순위만 다를 뿐 이슈 자체는 동일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 전체 상위 6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국민 전체 상위권 이슈와 계층별 상위권 이슈가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20대 남자, '일자리 증가' ('정치개혁' 대체)
 - 20대 여자, '일자리 증가' ('대선, 지지후보 당선' 대체)
 - 30대 남자, '공정한 사회 구현' ('생활물가 안정' 대체)
 - 60대 이상, '공정한 사회 구현' ('내 개인 수입 증가' 대체)

2022년 전체 '가장 이뤄지기 바라는 것'(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2.01.09조사,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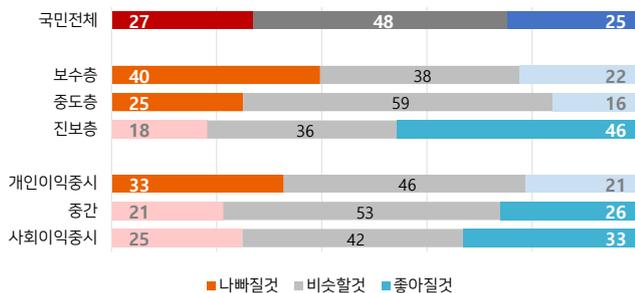
- ☑ '대선, 지지후보 당선'의 성/연령별 순위를 보면 60대가 2위로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냄
 - : 다음으로 4050세대와 30대 남자는 3위이고, 20대 남자는 4위임
 - : 또 30대 여자는 6위이고, 20대 여자는 10위로 가장 낮은 관심을 보임
 - :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산이 가장 많은 성/연령대인 여자 2030세대의 낮은 관심도가 국민 희망 사항에서도 그대로 드러남
- ☑ 이념별로 보수층과 진보층은 각각 1위와 2위로 높은 관심도를 보이지만, 중도층은 6위에 그침
 - : 보수층과 진보층을 중심으로 진영결집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도층의 관심은 낮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작년과 비교, 202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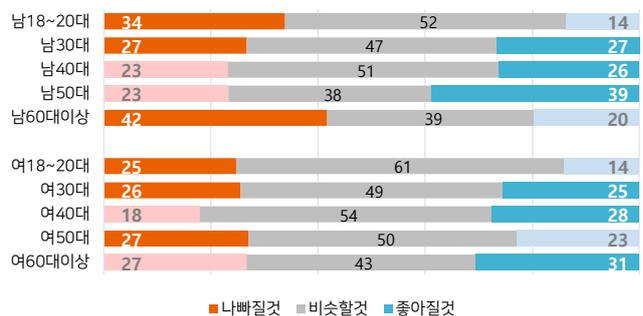
올해 대한민국, '작년과 비슷할 것'

- 국민들은 올해 대한민국이 '작년과 비슷할 것'(48%) 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나빠질 것'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각각 27%, 25%)으로 뒤를 이음
 - "선생님께서는 올해(2022년) 우리나라가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작년에 비해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나빠질 것'과 '좋아질 것'만 놓고 우세한 응답 현황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자영업자 등임
-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약중시층, 중간층 △남자4050세대 △여자 40대, 여자 60대 이상 △서울, PK △화이트칼라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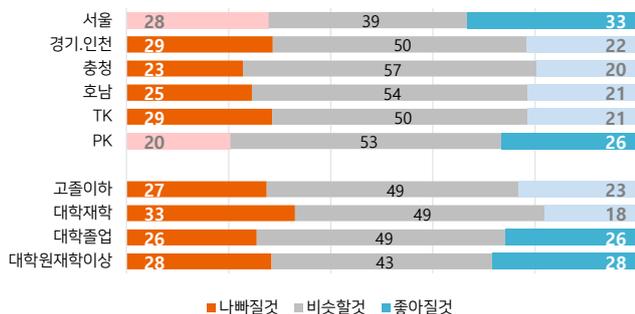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 대한민국 전망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1.09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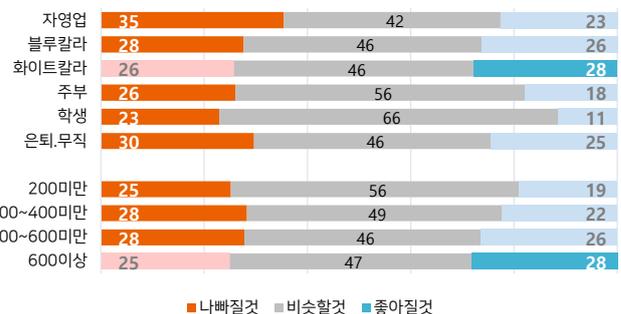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 대한민국 전망 : 성/연령별 (단위:%)



작년 대비 올해 대한민국 전망 : 지역별, 학력별 (단위:%)



작년 대비 올해 대한민국 전망 : 직업별, 소득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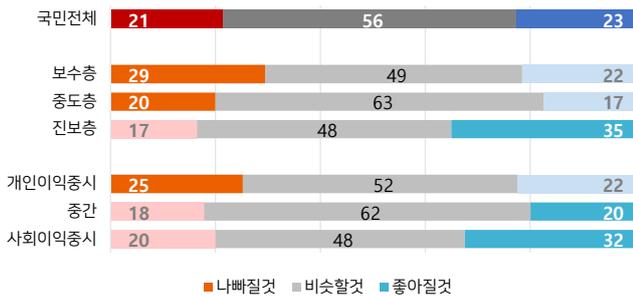
Kstat Point

- ☑ 2022년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통상 이러한 해는 국민 전체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생각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민적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대부분 계층에서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 이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낮은 것을 반증함
 - :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분명한 국정비전 제시로 국민적 기대감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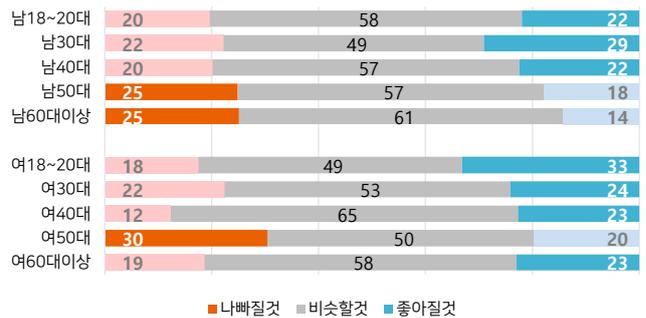
□ 올해 내 삶, '작년과 비슷할 것'

- 국민들은 올해 자신의 삶에 대해 '작년과 비슷할 것'(56%) 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좋아질 것'과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비슷하게 나타냄(각각 23%, 21%)
 - "그렇다면 선생님 개인의 삶 측면에서 볼 때, 작년에 비해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나빠질 것'과 '좋아질 것'만 놓고 우세한 응답 현황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30대 △여자 18~20대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개인이익 중시층 △남자 5060세대 △여자 50대 △경기.인천 △대학재학 이하 △자영업자, 블루칼라, 주부 △4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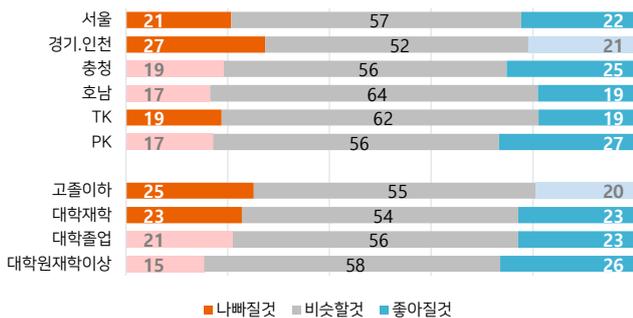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 개인 삶 전망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1.09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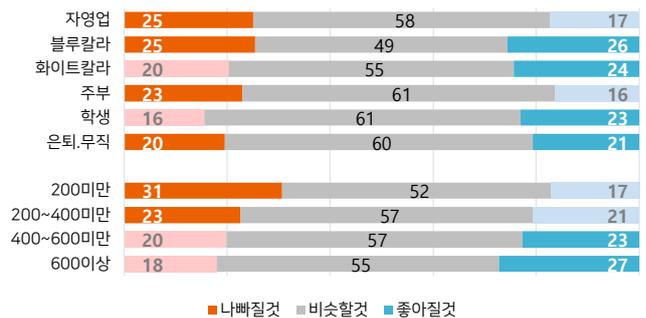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 개인 삶 전망 : 성/연령별 (단위:%)



작년 대비 올해 개인 삶 전망 : 지역별, 학력별 (단위:%)



작년 대비 올해 개인 삶 전망 : 직업별, 소득별 (단위:%)



Kstat Point

- ☑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이어 올해 개인 삶에 대해서도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음
 - :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기대감과 희망을 가져왔던 과거와 다른 양상임
- ☑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내 개인의 삶이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냉소적 태도를 피력하고 있음
 - :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범 초기 국민적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대선후보들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냉소적인 태도를 희망적인 태도로 바꾸는데 주력하고,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새 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확실히 부각해야 할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44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44호는 『ESG 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주제로 1월 27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